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이 영 민 · 백 수 련 · 박 홍 주 · 심 근 섭 · 이 희 주 · 전 혜 경*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촌진흥청 기술정보화담당관실*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ee, Young Min · Back, Su Ryon · Park, Hong Ju · Shim, Keun Seop
· Lee, Hee Ju · Chun, Hye Kyung*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Suwon, Korea
Informatics Division, RDA, Suwon, Korea*

ABSTRACT

Today, consumers need more information of well-being related food with an increase of interests in health.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provide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to consumer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The needs scores (5-point Likert scale) to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were high over all. The highest score was observed in 'disease care and diet therapy' (4.05 point). 'Functionality of well-being food' and 'safety and hazard of food' were followed having high scores (individually 4.00, 3.99 point). Female subjects had higher information needs than male subject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such as 'balance of diet', 'nutrients' and 'recipe of well-being food'. The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increased by age, although subjects who were over 50 had a decrease in information need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majority of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and educational level. Information need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income. Conclusively,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needs and ultimately consumers will improve their efficiency and satisfaction in using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Key words: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need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 서론

오늘날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웰빙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건강식품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이와 함께 웰빙식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1998년 36.7%에서 2002년 44.9%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4).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였고(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 339만명)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9.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5a). 동시에 평균수명도 크게 증가하여 2003년 생명표에 남자가 73.9세, 여자가 80.8세로 파악되었다(통계청 2005b). 따라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건강', '장수'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웰빙 개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쉬우므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정보 요구도는 체계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웰빙 이후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한 식사를 선호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으며(전정원 2005), 외식·식품업계에서 블랙푸드(Black Food)나 기능성술 등 웰빙 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식행동을 바꾸려는 의지를 나타내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부응하여 TV와 웹페이지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건강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류혜숙 등(2003)의 연구에서 1999년 3월부터 8월까지 TV 5개 채널을 중심으로 식품영양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사례건수가 237건이나 되었으며 이선영 등(2004)의 연구에서 또한 2개의 검색엔진으로부터 "영양정보"로 232개의 사이트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웰빙 식품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대해 양적으로 많은 정보가 제공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은희와 이기춘(1991)의 연구에서 정보의 양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정보 요구도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이선영 등(2004)의 연구에서도 웹사이트의 영양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으며 전문적인 운영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홍보나 판매 등의 광고성 정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매체에 의한 정보제공 조차도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가 많

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많았다(류혜숙 등 2003). 또한 수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실에 이용할 수 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적은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이경혜 2002),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웰빙식품관련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고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요구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을 위한 설문지는 이선영 등(2004)과 김혜영 등(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수원 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회수된 912부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24부를 제외한 88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4문항으로 나이, 성별, 학력, 소득정도로 구성되었으며,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소득정도는 월 소득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의 4 종류의 소득층과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월수입을 잘 모르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웰빙식품관련정보는 웰빙식품의 기능성,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 질병관리 및 식이요

법,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 균형 잡힌 식생활관련 정보, 영양소 관련 정보, 웰빙음식의 조리방법,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 식품의 안전 및 위해성분 관련 정보로 총 9개의 정보로 구성되었다. '웰빙식품의 기능성'은 웰빙식품의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저하, 항산화효과 등으로 설명되었고,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는 웰빙식품 내 영양·기능성 성분의 종류 및 함량으로,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은 암, 당뇨병, 골다공증 등의 질환별 식이요법으로 설명되었다.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의 경우 금주, 금연, 운동 등 건강생활습관에 좋은 식품을 의미하였으며, '균형 잡힌 식생활 관련 정보'는 식사 구성안, 식단 평가 등의 정보를, '영양소 관련 정보'는 당질,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기능 및 결핍증에 관한 내용임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는 임신부, 수유기,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에 좋은 식품에 관한 정보로 부연 설명되었고, '식품의 안전 및 위해성분 관련 정보'는 식품의 독성, 유기농식품 등의 정보를 나타냈다.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1점은 '전혀 관심 없다'에서 3점은 '보통이다'이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관심도가 높아져 '매우 관심 있다'의 경우 5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 하였고, 소비자의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나타냈다.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의 경우,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후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286명으로 32.2%, 여자가 602명으로 67.8%에 해당되어 여자가 남

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인 159명으로 17.9%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다소 적었으며, 30~39세가 25.1%, 40~49세가 29.6%, 50세 이상이 27.4%를 차지하여 고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이 52명으로 5.9%이었고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각 40.4%, 41.8%를 나타내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도 106명으로 11.9%나 되었다. 소득은 100만원에서 199만원이 28.8%, 200만원에서 299만원이 29.2%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소비자의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9가지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의 정보 요구도가 평균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웰빙식품의 기능성'과 '식품의 안전 및 위해성분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나 '웰빙음식의 조리방법',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 '영양소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requency	%
Gender	male	286	32.2
	female	602	67.8
Age(yr)	<30	159	17.9
	30-39	223	25.1
	40-49	263	29.6
	50<	243	27.4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2	5.9
	high school	359	40.4
	college	371	41.8
	graduate school	106	11.9
Monthly income (10,000 won)	100-199	256	28.8
	200-299	259	29.2
	300-399	158	17.8
	400-499	78	8.8
	500<	72	8.1
	others	65	7.3

의 정보 중 영양정보를 제공한 318사이트의 영양 정보 내용을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영양소, 대사 등에 대한 “기초 영양” 정보로 268개 (84.3%)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질환별 식이요법은 21.4% 밖에 되지 않았다(강혜경 등 2004). 강남미 등(1998)은 여성건강 및 영양정보에 관한 22개의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여 스트레스 관리,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식사평가, 성교육, 여성 암의 예방 등 실질적인 정보에서 높은 관심도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자원 낭비와 불만족의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는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요구도 분석을 통한 고객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또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별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성별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t-test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균형 잡힌 식생활 관련 정보’와 ‘영양소 관련 정보’ 및 ‘웰빙 음식의 조리방법’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전정원(2005)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웰빙 개념의 확산과 함께 건강을 고려하면서 식재료 선택이나 조리, 습관과 관련해서 생활습관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 수반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의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에 대해서는 남성의 정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에 술·담배·운동 등 건강생활습관에 좋은 식품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연령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연령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추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웰빙식품의 기능성 정보’에서는 연령대 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대가 4.09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가지는 것

Table 2.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Type of information	Needs
Functionality of well-being food	4.00±0.87 ¹⁾
Composition of well-being food	3.75±0.88
Disease care and diet therapy	4.05±0.87
Healthy lifestyle related food	3.92±0.91
Balance of diet	3.76±0.88
Nutrients	3.80±0.88
Recipe of well-being food	3.74±0.98
Well-being food of life cycle	3.67±0.96
Safety and hazard of food	3.99±0.90

1)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1=strongly disinterested, 5=strongly interested)

Table 3.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by gender

Type of information	Male	Female
Functionality of well-being food	3.95±0.86 ¹⁾	4.03±0.87
Composition of well-being food	3.68±0.88	3.79±0.88
Disease care and diet therapy	3.93±0.90	4.10±0.85
Healthy lifestyle related food	3.97±0.90	3.89±0.92
Balance of diet	3.58±0.89	3.85±0.86 ²⁾
Nutrients	3.61±0.94	3.89±0.84 ^{***}
Recipe of well-being food	3.39±0.99	3.90±0.92 ^{**}
Well-being food of life cycle	3.47±0.97	3.76±0.94
Safety and hazard of food	3.87±0.93	4.05±0.88

1)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
(1=strongly disinterested, 5=strongly interested)
2)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t-test
(*p<0.05 **p<0.01 ***p<0.001)

으로 나타났다.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는 40대가 40세 미만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은 정보 요구도를 보였으며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에서는 30세 미만에 비해 30, 40, 50대이상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높은 정보 요구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연간 만성질병 유병자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여 30대에서는 40%, 40대에서는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50대에서는 70%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질병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에 대해서는 40대가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균형 잡힌 식생활 관련 정보’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87과 3.91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영양소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30세 미만보다 30, 40, 50대이상에서 정보 요구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웰빙음식의 조리방법’에는 30대와 40대가 높은 정보 요구도를 보였다.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는 30세 미만 보다 30대, 40대, 50대이상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정보 요구도를 보였고 ‘식품의 안전 및 위해성분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30대와 40대에서 정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0세 미만보다는 30세 이상에서 웰빙식품관련정보 즉,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에서는 30대 또

는 40대보다는 덜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이은희와 이기춘(1991)의 연구에서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요구도가 30세 미만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한 것과 상반된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연령은 다른 관련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연령이 양의 방향으로 상관된다고 볼 수 있다. 내용별 정보 요구도와 연령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Table 7),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와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의 경우 정보 요구도는 연령에 대해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5) ‘질병관리와 식이요법’과 ‘영양소 관련 정보’의 경우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교육정도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Table 5에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를 교육정도에 따라 제시하였다. ‘웰빙식품의 기능성’ 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학 졸업이상부터는 중학교 졸업보다 요구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도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정보 요구도가 높아졌으며 고졸학력부터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고 대학원 이상이 4.09점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Table 4.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by age

Type of information	<30	30-39	40-49	50≤
Functionality of well-being food	3.96±0.89 ^{1)a2)}	3.93±0.91 ^a	4.09±0.79 ^a	4.00±0.89 ^a
Composition of well-being food	3.55±0.85 ^a	3.71±0.86 ^{ab}	3.92±0.83 ^c	3.74±0.93 ^b
Disease care and diet therapy	3.78±0.78 ^a	4.05±0.85 ^b	4.13±0.84 ^b	4.12±0.94 ^b
Healthy lifestyle related food	3.81±0.85 ^a	3.97±0.90 ^{ab}	4.04±0.87 ^b	3.80±0.99 ^a
Balance of diet	3.53±0.86 ^a	3.87±0.89 ^b	3.91±0.82 ^b	3.67±0.93 ^a
Nutrients	3.48±0.89 ^a	3.84±0.84 ^b	3.94±0.82 ^b	3.83±0.94 ^b
Recipe of well-being food	3.53±1.03 ^a	3.78±0.98 ^b	3.84±0.89 ^b	3.71±1.01 ^{ab}
Well-being food of life cycle	3.36±0.92 ^a	3.78±0.98 ^b	3.78±0.88 ^b	3.65±1.01 ^b
Safety and hazard of food	3.79±0.87 ^a	4.04±0.94 ^{bc}	4.12±0.81 ^c	3.93±0.96 ^{ab}

1)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1=strongly disinterested, 5=strongly interested)

2) The sam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보였다.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에서는 고졸 이상의 대상자가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균형 잡힌 식생활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중졸보다 고졸이상부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영양소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중·고·대졸이상에서는 정보 요구도의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대학원 이상에서 요구도 점수가 4.02로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음식의 조리방법'에 대한 정보 요구도도 교육 수준의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

다.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고졸부터 유의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요구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 및 위해성분 관련 정보'에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요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원 이상은 4.21로 가장 높은 정보 요구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웰빙식품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수준 증가에 따라 정보 탐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은희와 이기춘, 1991). 내용별 정보 요구도와 교육 수준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Table 7)에서도 대부분의 웰빙식품

Table 5.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by educational level

Type of inform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Functionality of well-being food	3.77±0.98 ^{1)a2)}	3.94±0.89 ^{ab}	4.05±0.85 ^b	4.17±0.75 ^b
Composition of well-being food	3.42±0.91 ^a	3.66±0.92 ^b	3.79±0.83 ^b	4.09±0.74 ^c
Disease care and diet therapy	4.06±1.02 ^a	4.04±0.91 ^a	3.99±0.85 ^a	4.23±0.71 ^a
Healthy lifestyle related food	3.69±1.04 ^a	3.96±0.88 ^b	3.89±0.92 ^{ab}	3.98±0.90 ^b
Balance of diet	3.37±0.93 ^a	3.75±0.90 ^b	3.81±0.89 ^b	3.88±0.74 ^b
Nutrients	3.69±0.92 ^a	3.77±0.94 ^a	3.79±0.84 ^a	4.02±0.80 ^b
Recipe of well-being food	3.54±0.85 ^a	3.70±1.04 ^{ab}	3.77±0.97 ^{ab}	3.86±0.81 ^b
Well-being food of life cycle	3.37±0.97 ^a	3.65±0.98 ^b	3.67±0.97 ^b	3.88±0.84 ^b
Safety and hazard of food	3.81±1.01 ^a	3.95±0.92 ^a	4.00±0.90 ^{ab}	4.21±0.79 ^b

1)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1=strongly disinterested, 5=strongly interested)

2) The sam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6.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by monthly income

Type of information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Functionality of well-being food	3.98±0.90 ^{1)a2)}	4.04±0.85 ^a	3.91±0.92 ^a	4.13±0.65 ^a	4.11±0.83 ^a
Composition of well-being food	3.67±0.90 ^a	3.74±0.85 ^{ab}	3.85±0.87 ^{ab}	3.91±0.71 ^b	3.90±0.89 ^b
Disease care and diet therapy	3.97±0.90 ^a	4.09±0.84 ^{ab}	4.08±0.87 ^{ab}	4.22±0.73 ^b	4.10±0.86 ^{ab}
Healthy lifestyle related food	3.81±0.96 ^a	3.92±0.85 ^a	3.98±0.93 ^a	4.06±0.87 ^a	3.99±1.01 ^a
Balance of diet	3.67±0.86 ^a	3.78±0.83 ^a	3.77±0.94 ^a	4.08±0.68 ^b	3.90±0.95 ^{ab}
Nutrients	3.71±0.89 ^a	3.81±0.83 ^{ab}	3.83±0.92 ^{ab}	4.05±0.74 ^b	3.89±1.00 ^{ab}
Recipe of well-being food	3.63±1.00 ^a	3.76±0.96 ^{ab}	3.80±0.96 ^{ab}	3.99±0.76 ^b	3.74±1.09 ^{ab}
Well-being food of life cycle	3.55±0.94 ^a	3.68±0.92 ^a	3.75±1.03 ^{ab}	3.99±0.78 ^b	3.78±1.06 ^{ab}
Safety and hazard of food	3.92±0.89 ^a	4.02±0.90 ^{ab}	3.97±1.00 ^a	4.24±0.72 ^b	4.06±0.80 ^{ab}

1) Data were expressed as Mean±S.D.(1=strongly disinterested, 5=strongly interested)

2) The sam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income.

Type of information	Age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Functionality of well-being food	.035 (.295) ¹⁾	.108 ^{**2)} (.001)	.036 (.296)
Composition of well-being food	.083 [*] (.013)	.171 ^{**} (.000)	.102 [*] (.003)
Disease care and diet therapy	.124 ^{**} (.000)	.030 (.367)	.066 (.059)
Healthy lifestyle related food	-.007 (.840)	.023 (.497)	.079 [*] (.023)
Balance of diet	.032 (.337)	.099 ^{**} (.003)	.111 [*] (.001)
Nutrients	.123 ^{**} (.000)	.077 [*] (.022)	.090 [*] (.010)
Recipe of well-being food	.053 (.117)	.072 [*] (.033)	.074 [*] (.033)
Well-being food of life cycle	.078 [*] (.021)	.091 ^{**} (.007)	.114 [*] (.001)
Safety and hazard of food	.045 (.180)	.093 ^{**} (.005)	.072 (.040)

1) Data were expressed as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p value)

2) *p<0.05, **p<0.01

관련정보가 교육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6. 소득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소득정도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웰빙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요구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와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은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요구도가 높아졌고 400~499만원 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는 소득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0~499만원 소득층까지 소득 증가에 따라 요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균형잡힌 식생활 관련 정보'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400~499만원인 경우가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영양소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400~499만원이 4.05점으로 나타나 정보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웰빙음식의 조리방법'도 '영양소 관련 정보'와 마찬가지로 400~499만원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도도 증가하였으며 400~499만원이 3.99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식품의 안전 및 위해성분 관련 정보'에서는 소득이 400~499만

원인 경우가 4.24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100~199만원 소득층에서부터 400~499만원 소득층까지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0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더욱 더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소득과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Table 7),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웰빙식품관련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을 위한 설문지는 이선영 등(2004)과 김혜영(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수원 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웰빙 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정보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요구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분포는 남자가 32.2%, 여자가 67.8%이었고, 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이 17.9%, 30~39세가 25.1%, 40~49세가 29.6%, 50세 이상이 27.4%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은 40.4%, 대학교 졸업이 41.8%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았으며 소득은 100만원에서 199만원이 28.8%, 200만원에서 299만원이 29.2%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인 웰빙식품관련정보의 요구도는 모든 정보에서 3.5점 이상으로 보통이상의 정보 요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에 대해 4.05점으로 가장 높은 정보 요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웰빙 식품의 기능성' 정보가 4.00, '식품의 안전 및 위해성분 관련 정보'가 3.9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t-test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해 높은 정보 요구도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정보 요구도는 30세 미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 요구도 또한 높아졌으나, 50세 이상이 되면 오히려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정도에 따른 정보의 요구도는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과 '건강생활습관 관련 식품 정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정보항목내용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소득 정도에 따라서는 100~199만원 소득층에서부터 400~499만원 소득층까지 소득증가에 따라 정보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웰빙식품관련정보 요구도와 소득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웰빙식품관련정보에 대한 정보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개인의 요구도가 충분히 고려된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 요구도 분석을

통한 고객맞춤형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미·현대선·탁계래(1998) 한국여성 건강 및 영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PC 통신에 의한 정보 서비스 요구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3), 365-374.
- 강혜경·강명희·유경혜·이선영(2004) 인터넷 영양정보의 모니터링-메타데이터의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37(8), 688-700.
- 김혜영·양일선·이해영·강여화(2003)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영양정보관련 실태분석. 한국영양학회지 36(9), 960-965.
- 류혜숙·양일선·김현숙(2003)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 한국영양학회지 36(5), 508-514.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만성질환편-
- 이경혜(2002) Cyber 영양정보와 국민건강. 한국영양학회지 35(1), 158-162.
- 이선영·강혜경·양일선·강명희(2004) 인터넷 영양정보의 내용 분석.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0(2), 224-234.
- 이은희·이기춘(1991) 소비자정보요구와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59-176.
- 전정원(2005) 웰빙 이후 외식 소비자들의 생활 성향 변화에 대한 연구-한식당을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1(1), 87-104.
- 통계청(2004) 2003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05a) 2005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05b) 2003년 생명표.